



정치 > 통일

## 통일 장관,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방문...산림협력 '시동'

김연철 장관, 3일 센터 준공식 참석해 축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진전 없던 산림협력 의지 재확인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6-03 06:00 송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일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 방문한다. 남북 간 산림 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행보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전 11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9

월 착공했다.

앞으로 남북 산림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북한과의 접근이 용이한 파주시에 조성됐으며, 스마트 양묘장과 관리동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시설이 들어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장관의 준공식 참석에 대해 "남북 간 협력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산림협력"이라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재개된다면 초기부터 북한과 산림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남북 간 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산림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사업으로 선정됐다.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해 구성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사업으로 '남북 산림 협력 연구'가 꼽혔다.

그해 7월 4일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은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9월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에 산림 협력을 명시했고, 10월 개최한 제2차 분과회담에서 남북은 공동으로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 및 약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북과위원회를 통해 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나눈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대남 무시 또는 비판 기조를 이어가면서, 산림협력 사업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장관이 파주 소재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방문한 것은 북한을 향해 산림 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분야이기도 하며, 인도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적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월 27일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 일대 한강하구를 방문했다. 또 5월 6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에 있는 파주 철거 감시초소(GP)를 방문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더불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표, 동해 북부선 연결사업 시동 등의 행보로 북한에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관건은 북한이 이에 호응하고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형국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역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되새기고 성과를 개선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보다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 차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